

공동체 소식



부활 제6주일

하느님, 먼저 저희를 사랑하시어 아드님을 저희에게 보내 주셨으니,
저희가 아드님을 통하여 참생명을 얻게 하시고, 빛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신
아드님의 사랑을 본받아, 성령의 도움으로 서로 사랑하게 하소서.



5월 기도지향

- 유길수 크리스토퍼, 유경애 아녜스 가정
- 고영방 스테파노, 김명은 안젤라 가정

☞ 교황님 기도 지향 : 우리가 무관심의 문화를 거부하고 고통 받는 우리 이웃, 특히 아픈 이들과 가난한 이들을 돌보도록 기도합니다.

성모성월

교회는 해마다 5월을 성모 성월로 지냅니다. 하느님의 어머니 이시고 믿는 이들의 어머니이시며 한국 교회의 수호자이신 성모님을 특별히 공경하고 그분에 대한 신심을 더욱 두텁게 하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는 이시기에 묵주기도와 성모 성월 기도를 자주 바칠 것을 권고합니다.

Mother's Day 축하 인사

모든 어머니들께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자비로우신 하느님의 마음입니다. 하느님은 인간에게 당신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어머니가 되는 은총을 허락하셨습니다.

청장년 남성 신자 피정

- 일시 : 5/15(금) ~16(토) 1박2일
- 장소 : Prairie Star Ranch Retreat Center(Williamsburg)

로렌스 공동체 야외미사

- 일시 : 5/16(토) 오후 5시
- 장소 : 로렌스 성당 근처 야외

기타

- 맨하턴 공동체 야외미사 잘 다녀왔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 이번 주일(5/10)은 '마더스 데이' 애찬을 준비해 주신 형제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4월, 평협회의를 통해 사제관 리노베이션에 대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특히 낡고 냄새나는 주방 가구와 비좁은 화장실 공사를 중심으로 견적을 받기로 했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저희 캔사스 공동체에서 반주자로 봉사해 주신 김민호, 이지혜 로사 가정이 타 주로 이사를 갑니다. 함께 해주신 시간 감사드리며, 가정에 하느님 은총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전례 성가

시 작	예 목	성 체	마 침
135	213	175/498	129

주일미사 복사

	시종 복사	항 복사
금주	고평원 프란치스코 문예나 요안나	안광민 제임스 김준영 요셉
차주	차서은 세라피나 차민서 임마누엘	차호섭 요셉 문호진 안토니오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주	박해정 가타리나	감영진 라파엘 한춘희 라파엘라
차주	최은미 아녜스	서재현 글라라 서민정 크리스티나

애찬 봉사자

	금주	차주
	마더스 데이	김경돌, 박정자, 양정희, 한순례

헌금 봉사자

	금주	차주
	정수한 베드로, 김대성 요한	백문주 엘리사벳, 고영방 스테파노

우리들의 정성

하느님께 드리는 헌금과 교무금에 정성을 다해투셔서 감사합니다!!!

	영성체	헌금	교무금
5/3	85명	346불	3,110불
	류길수, 감영진, 한봉경, 김태중, 김인자, 이영민, 양정직, 정준구, 조지연, 이현주, 한윤성, 정연숙, 안경혜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요일: 7:30 PM
목요일: 10: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캔사스 한인 천주교회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 563-7896 www.kckcatholic.org

주부 편집 : 박동희 안나 660.853.9984 flyanna@gmail.com

주임신부 주영길 토마스
M: 913.633.1273
jooyk88@gmail.com

회장 홍순의 마르티노
M: 913.486.4204

부회장 김태중 예레미아
M: 913.963.7521

재무 차호섭 요셉
M: 614.598.7908
hscha72@gmail.com

오늘의 전례

오늘은 부활 제6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속마음을 모두 드러내시면서 당신 사랑 안에 머물라고 초대하십니다. 우리를 당신 친구라고 부르시며 당신 곁으로 이끄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 나아가 그분 사랑 안에 머물면서, 그분께서 당신 생명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청합니다.

그림 묵상

사랑

하느님의 사랑은 무한하시어 모든 이에게 별처럼 쏟아집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아버지의 사랑을 진하게 느끼게 될 때,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는 용기와 힘이 납니다. 가까운 이웃에게 배려하는 사랑의 실천이야말로 주님께 드리는 선물일 것입니다. 인간에게 쏟아지는 하느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심오한지 온 마음으로 사랑의 계명을 새겨봅시다.

정미연 소화대레사

제 1 독서 : 사도행전 10,25-26,34-35,44-48

< 다른 민족들에게도 성령의 선물이 쏟아져 내렸다. >

화 답 송 :



주 님 께 서 구 원 하 심 백 성 들 앞 에 서 밝 히 셧 도 다.

- 새로운 노래를 주님께 불러 드려라. 묘한 일들 당신께서 하시었도다. 당신의 오른손이 거룩하신 그팔이 당신의 승리를 마련하였도다. ◎
- 주님께서 구원하심 드러내 보이시고 그 정의 백성들 앞에서 밝히셨도다. 이스라엘 집안을 위하시는 그 사랑과 진실을 아니 잊으셨도다. ◎
- 땅 끝마다 우리 주님의 구원하심을 모두 우러러 보았도다. 온 세상아 주님 앞에 덩실덩실 춤추어라 즐기어라 기뻐하여라 고에 맞춰 노래하여라. ◎

제 2 독서 : 요한 1서<4,7-10>

<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

복 음 : 요한 15,9-17 <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



“내어주는 사랑”



“하느님께서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어떤 민족에서건 당신을 경외하며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은 다 받아 주십니다.” 베드로의 이 표현은 사도행전에서 분기점 역할을 합니다. 이 말씀은 이제 모든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 역시 믿음을 통해 구원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오늘 제1독서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할례를 받은 신자들’과 ‘다른 민족들’입니다. 전자는 유대인 중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을, 그리고 후자는 유대인들의 시각에서 이방인들을 나타냅니다. 더 이상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유보된 것이 아니라 민족을 넘어 믿음을 갖는 모든 이들에게 해당된다는 것을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 전해줍니다. 흔히 우리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유다계 그리스도인과 이방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사도행전은 유다계 그리스도인들이 중심이었던 초대 공동체에 이방인 출신의 신앙인들이 포함되는 역사의 과정을 소개합니다.

우리는 부활 시기 동안 요한 1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느님 안에서 이루는 친교와 공동체 안에서 실천되는 형제적 사랑을 강조하는 요한 1서는 이제 그 사랑에 대해 좀 더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이고 ‘하느님은 사랑’입니다. 하느님을 나타내는 많은 특성 가운데 요한의 서간이 전하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구체적인 모습으로 드러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외아드님의 육화를 통해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하느님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그 사랑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당신의 아드님을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 보내 주신 것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우리의 것보다 앞서 있습니다.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고 우리는 그 사랑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느님 사랑의 표현인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그리고 사랑 안에 머무는 것은 명령을 따르는, 복음의 표현대로라면 ‘계명을 지키는 것’을 통해 가능해 집니다. 여기서 계명은 지켜야 할 규율이기보다는 하느님의 의지나 뜻을 표현하는 용어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계명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수난과 죽음을 통해 보여주신 것처럼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모습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충만한 기쁨입니다.

“서로 사랑하여라.” 사랑에서 시작한 하느님의 업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나고 이제 그 일을 우리에게 지속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부활 시기의 마지막에 우리가 듣는 단 하나의 말씀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쉬우면서도 어려운 일입니다. 어쩌면 너무나 흔히 쓰는 말이기에도 너무 평범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행하는 그릇된 ‘사랑’의 모습에 그 의미가 퇴색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가끔 소유나 만족이라고 불려야 할 것들에 사랑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는 지도 모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분명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나를 향해 모아들이고, 내가 중심인 사랑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는, 다른 이들을 살리는 사랑입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는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내 방식 대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대로 사랑합시다. 이것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에 대한 가장 바른 응답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 응답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기쁨 또한 충만해질 것입니다.



- 가톨릭대학 허규 신부 -



제 3 편 자기 성화

제 6장 죄짓게 하거든 버려라

네 손이나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 던져 버려라. 두 손이나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불구자나 절름발이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또 네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 던져 버려라. 두 눈을 가지고 불타는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한 눈으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마태 18, 8-9).

【주석】

생명에 들어가는 : ‘생명에 들어간다.’는 것은 구원 곧 영원한 생명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한다(주석 성경, 신약, 104).

영원한 불 : ‘지옥’을 말한다. 마태 5,29에서는 “네 오른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 던져 버려라.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지체 하나를 잃는 것이 낫다.”고 말한다.

【설명】

▶ 예수님께서서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말씀하신다. 죄는 죽음과 멸망 곧 지옥의 문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독사를 보면 본능적으로 피하는 것은 독사에게 물리면 죽을 수 있기 때문이다. 죄를 피함은 죽음을 피하는 길이다. 죄를 피하고 자주 고해성사를 받은 죄를 용서받고 영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함이다.

▶ 너희가 팔을 벌려 기도할지라도 나는 너희 앞에서 내 눈을 가려 버리리라. 너희가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나는 들어 주지 않으리라. 너희의 손은 피로 가득하다. 너희 자신을 씻어 깨끗이 하여라. 내 눈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들을 치워 버려라. 악행을 멈추고 선행을 배워라. 공정을 추구하고 억압받는 이를 보살피라. 고아의 권리를 되찾아 주고 과부를 두둔해 주어라(이사 1,15-17).

▶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오너라, 우리 시비를 가려보자. 너희의 죄가 진홍빛 같아도 눈같이 희어지고 다홍같이 붉어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기꺼이 순종하면 이 땅의 좋은 소출을 먹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마다하고 거스르면 칼날에 먹히리라.”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이사 1,18-20).

【교회의 가르침】

▶ 죄는 죄로 이끌며, 같은 행위를 되풀이함으로써 악습을 낳는다. 그 결과 타락한 경향들이 생겨나 양심을 흐리게 하고 선과 악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흐리게 한다. 이처럼 죄는 번식하고 더 강력해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도의심을 뿌리째 소멸시키지는 못한다(가톨릭교회교리서, 1865항).

▶ 악습들은 그와 반대되는 덕에 따라 분류할 수 있고, 또 죄종(罪宗)과 연관시킬 수 있다. 죄종(peccata capitalia)은 요한 카시아누스 성인과 대 그레고리오 성인의 뒤를 이어 그리스도인들의 경험으로 식별되었다. 이 악습들을 죄종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것들이 다른 죄들과 악습들을 낳기 때문이다. 죄종은 교만, 인색, 질투, 분노, 음욕, 탐욕, 나태이다(가톨릭교회교리서, 1866항).

【어록】

내가 악을 택할 때 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기 내 의지가 작용합니다. 나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 다른 모든 사람에게 해를 끼치려 할 때, 나는 자유의지로 죄를 선택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속이고 싶은 유혹을 받고 그래서 유혹에 저서 속인다면, 그때 내 영은 순결하지 못합니다. 나는 스스로에게 해를 끼친 것입니다(복녀 마더 테레사).